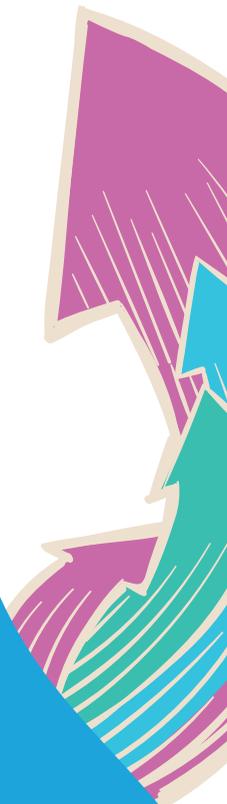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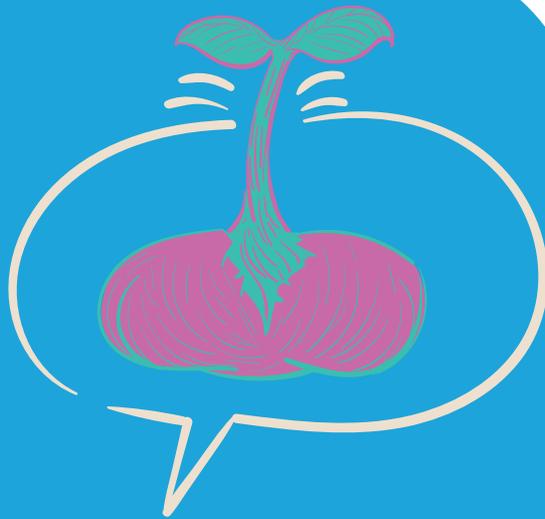


CREDO



성장통



표현의 자유는 표현하는 방식의 자유인가 표현되는 내용의 자유인가

정은혜 (인턴기자)

자유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이지만, 그것이 적용됨에 있어서는 꽤나 상대적인 것 같다.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나는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써 또는 행동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디까지 자유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시작은 표현의 자유에서였다. 한국에서 일반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 자유라는 인식은 아닌 것 같다. 그 표현하는 내용이 정당하면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설사 타인에 대한 지나친 비방과 비난이 되더라도) 허용이 되며, 내용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어떠한 표현 방식이든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문제는 그 정당한 내용, 부당한 내용의 구분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대중적 인식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드물며 법적인 경계를 세우려는 노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학 시절 총학생회 선거에서였다. 정치적 색깔이 극명하게 다른 두 팀이 있었고, 내 또래의 학생들 중에서는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친구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당연히 진보적 색을 띤 친구들이 높은 지지를 받는 듯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진보적 색을 띤 팀의 총학생회 후보단이 후보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과의 부당한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팀은 선거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그렇게 되자 이 팀이 상대 팀에 대한 적극적 비방과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상대팀이 학교 측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중앙 권력”에 힘입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총학생회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근거는 없었다.) 또한 상대팀이 다니던 교회 목회자와 지도교수들의 이름을 알아내어, 실명을 적은 전단지를 학교 게시판 이외의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붙이기 시작했다. 표현의 자유는 학생의 권리이며 그렇기에 어떠한 대자보와 전단지도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학교측의 적극적인 제재나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것을 크게 문제 삼는 이들은 없었다. 상대팀의 경우 학생들에게 자발적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쪽에 대한 싸늘한 시선도 많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두 팀의 입장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 “진보적”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색을 띄었던 그 후보들이 허가 받지 않은 게시물들을 학교 여기저기에 붙이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자보를 붙였다면, 그것 또한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라며 허용될 수 있었을까. 만약 모두가 동일한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면 그 자유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 방식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종종 언론기사들을 통해 대학교 내에서 동성애에 관해 벌어지는 갈등들에 대해 듣는다. 예를 들면, 탈동성애자라고 불리는 인사를 불러 강연을 열고 학생들을 초청하면, 반대하는 학생들은 차별금지 혹은 혐오발언 금지라고 쓰여있는 피켓을 들고 나오곤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자인 동성애 옹호 강연자를 불러 강연을 열면, 강연 금지 혹은 강연 취소 요구들이 이어지곤 한다. 만약 학교의 절대적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나의 사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표현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한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개인적으

로 그 사람의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나누는 것은 좋지만 **강연자체를 막고 학교 내에서의 행사를 막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닐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강연철회 혹은 발언금지 요구 등이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반대파들의 하나의 표현방식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면 우리 또한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부족하며, 특히 법적 관점에서의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문제는 차별금지와 언어폭력으로 또한 이어진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적용될 때는 내용에 따라 적용 정도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가 표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자유를 줘야 하는 것인가? 수많은 사상들과 이익집단이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중의 인식이나 감정에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근본적으로는 법적인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대중적 인식이 쌓이고 대중적 논의가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고민과 논의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